

# 강진 푸소 '더 건강하고 더 맛있게'

### 어린이·청소년 메뉴 및 식단개발 중간보고 송원대 박연옥 교수 연구 수행내용 설명



강진군 농어촌개발추진단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지난 4일 강진푸소협동조합 조합원 및 관계자 20여명과 함께 '푸소 활용 어린이·청소년 메뉴 및 식단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액션그룹으로 활동 중인 강진푸소협동조합은 농가민박과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결합한 강진군 대표 생활

관광상품인 '푸소(FU-SO)' 운영자로 구성된 단체다.

이번 연구용역은 푸소를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동시에 건강도 챙기는 메뉴 및 식단개발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계절별·행사별 대표메뉴 개발, 푸소 체험메뉴 개발, 로컬푸드의 마케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수행기관인 송원대 박연옥 교수의 설명을 중심으로 푸소농가 및 어린이·청소년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중심요리, 부찬, 체험메뉴 등 지금까지의 결과물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유영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장은 "푸소농가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있으면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식단개발을 위해 진행중인 연구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줘 감사하다"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앞으로도 푸소의 발전과 성장에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19년 농림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조직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액션그룹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맞손

### 해양바이오 기술 공유 및 전문 인력 양성·인적 교류 등 협력

완도군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과 9월 8일 해양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두 기관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해양바이오산업 전략을 수립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협력,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약 분야는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 및 연구 협력 ▲해양바이오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교류 ▲해양바이오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시 프로그램 공동 개발·활용 등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의 다양한 해양자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연구 기술이 연계되면 우리 군 해양바이오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면서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신 해양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해양바이오 전문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자원 전문 연구·전시·교육 기관으로 해양바이오 소재 개발 및 산업계 지원 등 해양생물자원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농촌 생활 체험...참가자들의 호의적인 반응 이끌어



진도군이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살면서 일자리와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주민들과 교류·소통의 장을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3개월 동안 군에 거주하며 영농 일자리 체험, 선진농가 방문 등 다

양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세방낙조, 운림산방 등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군의 다양한 지역문화도 알아갈 수 있다.

총 9명의 참가자들은 오는 10월말까지 지산면의 길은푸르미 체험관에서 무료 숙박과 매일 30만원의 연수비를 제공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대전에서 온 참가자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여 후, 진도로 귀농을 결심한 이유 중의 하나는 깨끗하게 잘 보전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다"며 "또한 귀농을 앞두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영농체험 등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귀농·귀촌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농촌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 있는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농촌생활 경험을 제공해 프로그램 종료 후, 귀농·귀촌 최적지인 진도군으로의 정착을 유도해 농촌의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 장흥군, 음악과 책이 있는 '탐진강 힐링 콘서트'

### 오는 16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장흥군이 청년의 날을 맞아 오는 9월 16일 탐진강변에서 '탐진강 힐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탐진강 작은 콘서트, 북(Book)크니, 플프마켓, 공연·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콘서트는 청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무대에서는 플룻&보컬, 트럼펫 솔로, 중창, 대중가요 등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북(Book)크니 신청자들은 그늘막과 책 꾸러미를 대여하여 탐진강변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다.

전라남도립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이동도서관 '책책뽕뽕 책버스'도 현장에서 이용

가능하다.

정남진장흥직거래지원센터와 장흥군농어촌신활력센터에서 준비한 플프마켓에서는 30곳에 달하는 판매·체험 및 먹거리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어린이 손인형극, 석고방향제 만들기, 생약초부터티라피 체험, 뜨개질 체험 등 다양한 공연·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아름다운 탐진강의 풍광을 배경 삼아 음악과 책, 마켓, 체험행사를 함께 누리는 '탐진강 힐링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이번 행사가 전 세대가 모두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